



## 백두대간 종주기 제4보

광전재료과 화공사무관 최월영

(물한리계곡에서 우두령 김천 황악산을 스쳐 레방령, 추풍령을 가로질러 용문산을 지나 상주의 큰재까지 : 약 50 km)

오늘은 2003년 4월 12일 만나면 즐거운 사천왕을 만나러 동대문으로 간다.

출발시간 5분전 번동의 증장천왕이 회사에서 설악산으로 단합대회 가기 때문에 참석을 못한다고 연락이 왔다. 다음주에 혼자서 오늘의 구간을 간다나?

어둠을 뚫고 오늘도 고려관광 버스는 힘차게 안개 낀 동대문운동장 8번 출구를 출발하여 목적지로 향한다.

새벽 4시 물한리 버스정류장에 도착하여 이구 대장님이 5시 30분부터 산행이 시작될 예정으로 그때까지 조용히 휴식을 취해 줄 것을 부탁받고 잠깐 눈을 붙인다.

5시 기상과 함께 아직도 산에는 눈이 쌓여 있으니 스패츠를 차야 된다고 한다.

계획보다 20분 빠른 5시 10분 물한리 계곡의 밤을 깨우는 싱그러운 물소리를 몸으로 느끼며 오늘의 대간 시작 마무리인 심마니재를 향하여 가이드와 3천왕이

선두로 부지런히 발걸음을 재촉한다.

전날의 비와 잔설을 헤치고 아직도 동면상태에서 깨어나지 않은 철쭉, 사리나무 군락을 헤치고 오늘은 새로운 손님인 고산자아주머니의 궁둥이를 따라 전진한다.

고산자아주머니는 GPS 및 보이스트레코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대간 능선을 기록하고 그때 그때 상황을 레코더에 녹음하여 2년후 백두대간 지도 제작시에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우리나라 최고의 백두대간(정맥포함) 지도를 만들겠다고 한다.

이름도 참 고상하다 고산자(高山子), 남자로 태어났다면 산에서 살 사람이네?

오늘은 컨디션 조절에 주의하면서 우두령을 못미쳐 헬기장에서 개장국으로 아침을 진하게 먹고 김천 황악산을 향하여 출발, 오늘은 소주 2잔 밖에 먹지 않았네.

우두령을 지나 삼성산(985m)까지 길 좋고 날씨 좋고 컨디션 양호하고 선두로 나서기 위한 준비완료, 삼성산을 오르는 중 산버들의 움트는 모습에서 잠시 나를 잊고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면서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에 좋은 친구와 동행하여 금수강산을 몸으로

맞이하며 걸을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을 허공에 전하며 목적지를 향하여 걸음을 옮긴다.

지금의 산골은 그 춥던 겨울눈이 쌓여 있고, 나무 가지에 안개 고드름이 피어있는 지겨운 모습이 아닌 새싹이 움트기 전의 고요함을 나타내는 무미건조한 모습이다.

저 멀리 황악산이 보이고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몸과 마음이 따로 놀기 시작한다.

이런 때 증장천왕이 있으면 입으로라도 수다를 떨어 힘을 북돋아 주겠지 생각하면서 황악산에 막걸리 먹자는 지국천왕의 달콤한 목소리에 힘내어 황악산을 정복한다.

황악산에 오르니 김천에서 올라오는 이주머니, 아저씨, 할머니, 할아버지, 소녀, 소년 등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고, 삼천왕은 헬기장옆 구석을 분양받아 막걸리 한병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데 이구대장님께서 조금 아래에 우리편 기지를 마련해 놓았다고 연락이 와서 내려 가본 적 반가운 얼굴들이 바위에 올라 앉아 잔치를 벌리면서 우리를 반기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네. 이구대장님이 하사하신 죽엽청주 한잔을 단숨에 들이키고 마지막 구간인 퀘방령을 향한 하산길은 김천 직지사 쪽에서 올라오는 등산객들로 인하여 길이 막히면서 전진하는 대간팀의 앞길을 지꾸 막는다.

가파른 능선을 잡아 오늘의 마지막 지점인 퀘방령에 도착하니 먼저 온 우리의 아군들이 감치찌개에 막걸리에 소주를 주면서 오늘의 완주를 축하해준다.

오늘은 비교적 좋은 몸 상태로 기분좋은 종주로 기록하고 싶다.(소요시간 : 약 9시간)

오늘은 2003년 4월 26일 백주대간 종주 구간 참여

8회차 코스 전진.

거인산악회의 제7차 백두대간 종주팀이 가는 길의 날씨에 아직까지는 정말 좋다.

전생애 악업이 없는 사람들만 이번 종주팀의 일원으로 참석한 것 같다.

오늘도 9시 40분 집을 나서 동대문운동장역을 향한 토요일 저녁의 외출이다.

오직 산이 좋아 나오는 반가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항상 즐겁고 마음 설레는 일이다.

7회차에 불참한 증장천왕이 7회차 코스는 가지 못하고 전번주에 양재 화물터미널에서 수원 광고산까지 종주하고, 집에 오는 길에 수원역에서 무궁화를 타니 수원에서도 기차타는 사람이 있냐는 이상한 눈으로 사람들이 쳐다 보드라고 너스레를 떠다. 그 동안의 근황들을 물으며 오늘의 종주코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어 본다.

지도상에 소요시간이 15시간 정도로 나와 있으니 12시간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데 이구대장 왈 오늘의 산행은 30개고 이상을 넘어야 하는 발품이 필요하다고 한다.

7회차 마지막 지점인 퀘방령에 도착하니 겨울의 잔해가 남아 있는 밤 기운에 긴장을 하면서 잠시 눈을 붙인다. 산행 시작 전에 밀려 오는 새벽의 긴장감은 또 다른 신선한 기운이다.

아침 4시 45분 이구대장님의 출발 신호와 함께 사천왕도 선두 그룹에 합류하면서 오늘은 추풍령 고개길에서 아침을 먹기로 하고 헤드랜턴 불빛에 의지하여 부지런히 발걸음을 늘린다. 이구대장은 뒤에서 우리의 가이드인 말용씨에게 천천히 전진할 것을 계속 지시하

고, 말용씨는 대원들이 먼저 가는 데 어찌란 말인지 하면서 투덜 투덜 산마루를 올라간다.

우리 삼천왕도 선두 그룹에서 뒤질세라 앞서사람의 궁둥이만 보면서 걸기를 1시간 새벽의 장막을 걷고 웅장하게 앙상한 나무가지 사이로 아침해가 앞산 마루를 올라온다. 언제 보아도 아침에 떠오르는 해는 신비하고 희망찬 하루를 약속해주는 것 같다.

네 다섯개의 봉우리를 거쳐 가성산에 도착하여 한숨을 돌리고, 내리막 길을 진행하다 다시 올라가니 장군봉이 있고 거기서 8개 정도의 봉우리를 지나 놀의산 정상에 서니 눈앞에 추풍령이 눈 아래 펼쳐진다. 배도 고르고 목도 마르고 서서히 피로가 몰려오기 시작한다.

경부선 철도를 횡단하여 추풍령 노래비가 있는 간이 공원에 오늘의 아침 만찬을 위한 터를 잡고 보니 아침 7시 5분이 되었다.

우선 맥주로 목을 축이고 곱창을 안주로 한점 먹고, 오늘도 개장국을 위한 특별 요리를 만들어 아침을 푸짐하게 먹고 나니 7시 45분 다음 마루금을 향하여 출발한다.

“구름도 자고가는 바람도 쉬어가는 ...” 추풍령 노래비 앞에서 폼 좁잡고 도로 공사로 인하여 대간 종주 길이 없어져 눈을 크게 뜨고 겨우 길을 찾아 마루금을 올라 서서 전진하길 10여분 철로 부설 자갈 채취로 인하여 반이나 없어져 버린 대간의 한쪽을 아쉬워하며 소나무 숲과 잡목이 심한 지그 재그 길을 헤쳐 500고지에 오르니 추풍령저수지 보이고 동쪽으로 묘합산(733m)이 눈에 들어 온다.

사기점 고개를 지나 작점고개 가는 길을 잘못 들어 30여분 정도 헤메다 시멘트 길을 따라 내려 오기를 30

분 정말 지겨운 시멘트 길이었다.

작점고개는 최근 백두대간 종주팀들이 붙인 고개 이름이다. 작점마을에서는 충북사람들이 고개 너머 경상도 땅에 여덟마지기 전답에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여덟마지기 고개라 하기도 하고, 능치마을에서는 고갯마루에 성황당이 있었다고 하여 성황데이고개라 칭하는 사람도 있다. 실제 성황당터는 이 고개에서 5분 거리에 있으며, 그 옆에 큰 소나무가 한 그루 서 있다.

간신히 지도상의 납골당을 확인하고 대간 꼬리표를 찾아 길을 오르려니 배가 아프면서 온 몸에 힘이 빠져 삼천왕에게 용문산에 만나자고 하면서 무덤 2기 옆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다.

배는 아프고 다리에 힘이 빠져 몸은 지친 상태지만 초목이 초록으로 변하는 모습이 좋다. 그 겨울의 추위를 헤치고 잎을 만들고 새싹을 튀우면서 생명의 존엄성을 인간에게 일깨워 주는 초목의 모습에서 삶에 지친 산나그네의 의욕을 북돋아 줄만도 하건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용문산(710m)에 도착하니 12시 45분, 벌써 8시간이 지났다

그래도 가야만 하는 길이기엔 몸을 떠난 마음을 다 잡아 앞서간 삼천왕을 따라 무거운 걸음을 옮기다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주저 앉으면 마냥 졸음이 밀려온다.

국수봉을 향한 내리막길은 지친 몸에는 정말 지겨운 길이다. 간신히 국수봉에 도착하니 지국천왕 혼자서 짐을 꾸려 하산 준비중이다. 반가운 마음에 다른 천왕은 어디 있느냐고 물어 보니 먼저 내려갔다고 한다. 먼저 내려가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물통을 보니 거의 바닥이다. 갈 길은 먼데 물은 없고 이제부터는 깡다구다고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지친 몸을 일으켜 하산길을 재촉한다.

하산길은 정말 지겨운 여정이다. 끝났다 싶으면 나타나는 조그만 고개길을 몇 고비 넘어 큰재에 도착하니 증장천왕이 형님 수고 하셨다고 하시면서 빨리 출발해야 된다고 1호차에 짐을 가져오라나. 밥도 못 먹고 패트병 1통의 물로 배를 채우니 물이 핏줄을 타고 흘러가는 느낌이 온 몸을 휩싸고 돈다.

오늘의 산행도 힘들었다. 우선 왜 다른 때보다 힘들었는지 원인 분석을 하고 6월달의 지리산 종주(성삼재에서 천황봉을 거쳐 중산리 하산길)에 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종주를 마감한다.(소요시간 : 11시간)

오는 길에 이구 대장 왈 백두대간 종주를 3단계로 구분할 경우 1단계를 정복하였음을 축하하고 이 구간이 지나면서 종주팀이 재편된다고 하니 5월의 참석자를 지켜보아야겠다.

<오늘은 물한리계곡, 김천 황악산 직지사, 궤방령 및 추풍령을 소개합니다.>

○ 물한리계곡

물한리계곡은 음주암골, 쪽새골, 무지막골, 각호골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합쳐 흐르다 한천마을부터는 초강천이라는 이름을 얻어 흘러간다. 삼도봉, 석기봉, 민주지산, 각호산 등 1,000m가 넘는 산봉우리에서 흘러내리는 계류가 흘러드는 물한리계곡은 수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용소와 옥소폭포, 의용골폭포, 음주골폭포 등이 어우러져 뛰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남한의 마지막 원시림지대인 물한계곡 일대에는 고라니, 오소리, 사향노루, 대륙도리담비, 삿, 고슴도치 등의 천연기념물이 산다. 또 붉은배새매, 새매, 청호반새 등의 희귀종이 살고 있다. 94년 물한계곡과 민주지산 일대에 7백만평 규모의 스키장과 골프장을 건설한다는 개발계획이 발표되자 이를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대전·충남지역의 환경단체들이 연대하여 개발저지운동을 펼치고 있다.

○ 황악산 직지사

황악산(黃岳山 · 1,111m)은 직지사를 끼고 있는 덕에 관광객이 많이 찾는 산이지만 정작 이 산을 오르려고 찾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 까닭은 이 산이 비록 약(岳)자를 쓰고 있다고 해도 전형적인 육산(肉山)인 까닭에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황악산 동쪽 자락에 기댄 직지사는 김천 사람들의 자랑이다. 고구려 선교사로 신라에 불교를 전한 아도화상이 418년에 창건한 천년사찰 직지사는 아도화상이 구미 금오산에서 이 절터를 손가락으로 가리켜 '직지'라는 이름을 얻었다. 일설에는 936년 고려 태조 때 능여대사가 절을 확장하며 손으로 측량한 데서 유래했다고도 한다. 하지만 '직지'는 불교용어로 '직지인심 견성성불' 즉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불성을 똑바로 가리켜 깨치게 되면 부처가 된다'는 불경의 어귀에서 따왔다는 게 더 설득력이 있다.

직지사에는 사명당의 영정이 보관되어 있고, 석조여래좌상과 대웅전, 그리고 비로전 앞 3층석탑과 대웅전 삼존후불탱화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내부의 천장과

기둥의 단청이 이름다워 한국 사찰예술의 정수를 보여 준다는 비로전은 천불을 모셨다해서 천불전으로도 불린다. 고려 초 경잠대사가 16년간에 걸쳐 경주 남산 옥돌로 만든 천불은 제각각 표정이 다르다. 그중 알몸의 동자상이 하나 있는데 참배객이 불당에 들어섰을 때 첫눈에 이 불상을 찾아내면 아들을 낳는다고 한다.

○ 케방령

영동군 매곡면 어촌리와 금릉군 대항면 향천리 사이의 고개로 977년 지방도가 지난다. 옛날 도보로 다니던 시절에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세 관문 중의 서쪽 관문으로 주로 상로(商路)로 이용되었다.

임진왜란 때는 박이룡이 의병을 일으켜 이 고개에 방어진을 치고 왜적을 막아 큰 전공을 세웠다. 북쪽에는 변화한 추풍령이 있어 덜 개발되었지만, 영동~김천간의 주요 교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 추풍령

백두대간을 넘는 대표적인 고개로는 영주와 단양 사이의 죽령, 괴산과 문경 사이의 조령, 영동과 김천 사이의 추풍령이 손꼽혀왔다. 조령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붐비는 고개였다. 하지만 1905년 경부선 철도가 추풍령으로 지나가면서 사정은 많이 달라졌다. 조령으로 통과하던 교통량이 모두 추풍령으로 흡수되자 추풍령은 나라에서 가장 변화한 고개로 급부상했다.

게다가 1970년 개통된 경부고속도로도 역시 추풍령을 지나게 되면서 우리나라 대동맥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했다. 또 4호선 국도가 지나고, 예전에 이용하던 소로길도 있는 추풍령은 옛부터 현재까지의 교통로 발

달과정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고개다.

추풍령 고갯길은 가파르게 구불구불 넘어가는 구절양장이 아니다. 고개 마루가 해발 221m에 불과해 언제 고개를 넘었는지도 잘 가늠이 안될 정도로 완만한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황간쪽은 고갯마루 부근이 완만하고 평탄하다. 백두대간을 가로질러 넘나드는 고개 중 가장 평탄한 경사를 가진 고개일 것이다.

하지만 추풍령은 전략상으로 중요해 나라에 전쟁이 있을 때마다 이 고개에서는 항상 큰 싸움이 벌어졌다. 1592년 김해성을 함락시킨 왜군은 한양을 향해 계속 북상했다. 조경과 양사준이 경상우도 지역의 관군을 이끌고 추풍역을 지키고 있었지만 왜군 북병의 기습공격을 받은 관군은 일시에 패해 조경이 포로로 잡혔다.

이때 돌격대장 정기룡이 죽음을 무릅쓰고 적진 깊숙이 뛰어들어 왜군 100여 명을 죽이면서 조경을 구출해냈다. 이런 용감무쌍한 싸움에도 불구하고 추풍역 전투는 관군의 패전으로 끝났고 추풍령 동부 경상도 지방은 왜군의 수중에 들어갔다.

또 이듬해인 1593년 의병장 장지현도 부하 수천 명을 거느리고 왜군 2만 명을 맞아 치열한 전투 끝에 물리쳤으나, 다시 금산쪽에서 온 왜군의 협공을 받아 장렬히 전사해기도 했다. 추풍령면 사부리에는 의병장 장지현을 모신 사당이 있다.

